

자살로부터 안전한 군산

시, 정신·자살 응급대응협의체 구축 운영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정신·자살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정신·자살 응급대응협의체의 강화와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군산대 LINC+사회혁신실험센터,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의료원,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건강 주요현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방안에 대해 모

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자살 응급대응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신·자살 고위험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정신·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시희망복지지원단이 참여한 지역사회유관기관 네트워크회의를 진

행했으며 이를 활성화해 위기가족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자살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지역사회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자살문제로부터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 우울·자살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 445-9191(보건소 2층, 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할 수 있다./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가 제1호 환경시범마을인 함라 장점마을에 이어 왕궁정착농장에 제2호 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시범마을로 ‘재탄생’

익산 왕궁정착농장, 함라 장점마을 이어 두번째로

익산시가 제1호 환경시범마을인 함라 장점마을에 이어 왕궁정착농장에 제2호 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시는 왕궁농원 환경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초화류 동산 조성을 시작으로 테마숲 조성, 2곳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주민 휴식 쉼터·버스승강장 설치, 마을안길 포장 등 인근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초화류 식재에 참여한 오택림 부시장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은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국내 제일의 환경

친화도시 다이로온 익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궁정착농원에는 지난 1948년부터 축산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의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 생태복원, 바이오순환립 조성, 익산천·주교재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정착농원 생활개선은 물론 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대비 익산천 수질은 총인(T-P) 기준 98%로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복합악취는 2012년 대비 89%가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어 민경장 수변공간 조성과 새만금 내부개발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취약계층 고용충격 완화

군산시, 울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취약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30명, 생활방역 등 일자리사업 280명으로 총 310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백신예방접종센터 행정 지원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방역,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업무 긴급지원 등의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생활방역 등 일자리사업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되며, 근무시간은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1일 8시간, 생활방역 등 일자리사업은 1일 4시간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 및 주·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로서, 취약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백신접종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특성상 만 40세 이하의 코로나19 고위험군(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에 속하지 않는 자를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내년 국가예산 8500억 확보 목표’

익산시, 확보대상사업 보고회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8천500억원 확보 목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2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발굴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69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98건을 확보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5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출장, 지역 출신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및 스마트 전장부품 OPEN-R&D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 전라권 청소년 디딤센터 등으로 단계별 논의를 개발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또한 대표적인 계속사업으로는 홀로그림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팽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가족센터 건립 등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총 8,500억원으로 정하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예산사업 T/F팀과 전략·컨설팅 전담 부서인 정책개발담당관이 사업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한다.

더불어 체계적인 중앙공모사업 관리로 중소기업도 국비사업까지 총출한 관리를 통해 국가예산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국회 등 끈질기게 발품을 팔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산단 기업체 희망나무 나눔

군산시가 산업단지 기업체에 희망나무 나누주기 행사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주차장 일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단지 기업체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수종인 감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 1,200본을 나누주며 참여 기업체 내 적정 장소에 직접 나무를 심어 코로나19 극복 염원과 함께 나무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산=남현용 기자



결산검사위원 위촉

익산시의회의(의장 유재구)는 지난 2일 의정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결산검사위원회에는 대표위원인 김태열 의원을 비롯해 맹진용 세무사, 박준식·정영희 전 공무원, 채동식 전 서민금융진흥원 지부장 등 총 5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세입·세출예산, 재산 및 기금 등 익산시 재정전반을 엄격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유재구 의장은 “재정분야에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되어 기대가 크다. 익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소방서 올 1분기 소방활동 증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021년 1~3월동안 소방활동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분기에 발생한 화재는 총 73건으로 전년 대비 14건(23.7%)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명(사망1, 부상1)으로 전년 대비 1명(사망1)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159% 증가 됐다.

화재원인으로는 주거시설 30%(42건), 야외 36.3%(47건), 산불 100%(3건)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산업시설(창고, 공장), 동식물 시설이 증가했다.

구조 출동은 총 1,155건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고, 인명구조도 110명

에서 147명으로 25.7% 증가 되었다.

사고유형은 교통사고 20건, 기계 2건, 산악4건, 승강기 사고 14건, 안전조치 10건, 위치추적 2건, 인명감함 4건, 자살추적 9건, 잠금장치 개방 19건 등이 다.

구급출동은 총 4,228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심정지·중증의상환자의 이송건수가 131건에서 142건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응급환자들에게는 목격자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2곳 지정

군산시는 ‘2021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산돌팜, 이삭클린 협동조합 2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예비단계로 공식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

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된 2개 기업 중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산돌팜은 농작물 재배 및 가공판매, 이삭클린 협동조합은 청소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결과가 발표돼 시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개 업체가 총 12명의 인력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